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어르신들께서 살맛나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선부3동 달미경로당)

### 02·03

**윤화섭 시장의 아름다운 동행**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이라고 명명했던 민선 7기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강조했다. 취임일인 7월2일 첫걸음을 동행했다. 현장의 이미지와 메시지, 취임사를 전달한다.

### 04·05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강한 역동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선7기가 강조하고 있는 다섯 가지 시정방침과 10가지 핵심공약에 대해 설명한다.

### 09

**안산착한가게 시리즈**  
삼계탕 하우스 - 저렴하게 즐기는 여름 보양식  
한양식당 - 푸짐하고 맛있는 집 밥  
옛날학사 - 제육쌈밥이 단돈 5천5백원  
부정(父情)부페 - 제값 하는 착한 식당

### 10

**미술의 도시 안산⑤**  
미술관 열고 관객과 소통하는 안산의 대표화가 ‘정문규’

### 18·19

**우리동네 소식을 전해드려요!**  
반월동 - 지역사회 합동 건강 캠페인 실시  
일동 -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우수상 수상  
본오2동 -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우승 등

### 재난신고 119

## 안산시, 9월말까지 폭염피해 예방 총력

폭염발생 시 외출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 무더위 쉼터(경로당, 도서관, 관공서) 이용 등 건강에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 안산시 폭염 대책**
- 무더위 쉼터 확대, 물놀이 시설 확충
  - 그늘막 추가 설치, 휴대용 선풍기 추가 지원 등



윤화섭 안산시장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첫 걸음



7월 2일 현충탑 참배로 시작



시청 앞으로 마중 나온 직원과 인사



인수인계서 서명으로 공식 업무 시작



2층 시장실로 한 걸음씩



새로 임명된 직원들에게 사령장 교부



임명된 직원들과 서로 인사



임명된 직원들과 기념촬영



우리시의 태풍 현황에 대해 점검



시민대표와의 만남



태풍 비상근무 중인 상황실에서 취임식

# “오늘은 취임식 아닌 임명식... 내 언행이 내 거울이라 생각” 재난상황 보고 받으며 본격 업무 시작, 안전도시 ‘강조’

윤화섭 민선7기 안산시장이 발표한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다. 첫 걸음은, 폭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는 안산시청 재난상황실로 향했다. 시간은 오전 8시. 애초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려 했던 취임식도 재난상황실에서 약식으로 치렀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시민 대표 3인이 함께했다. 먼저 윤화섭 시장의 취임선서가 있었다. 윤 시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안산시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이어 장애인 대표로 최경분 씨가 나섰다. 추락사고로 중도장애를 입은 최경분 씨는 현재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장애인의 70%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편지글을 읽은 중국 출신의 쉰이춘홍 씨는 “이주여성들에게 안산은 제 2의 고향”이라며 “능력 있는 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

다.”고 했다. 시민대표이자 윤화섭 시장의 이웃으로 소개된 강산해어린이집의 허병순 원장은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로 안산시청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며 윤화섭 시장을 ‘소박하고 듬직한 키다리아저씨’로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화섭 시장은 “시민대표 세 분의 바람을 잊지 않고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너의 언행이 너의 거울이다”는 말로 제 마음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동안 내린 비로 안산시는 2일 오전 7시 기준 가로수 전도 14건, 도로 파손 8건, 도로 침수 14건 등 총 41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39건은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윤화섭 시장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 화정천에 인도가 보일만큼 안정이 된 것 같다.”며 “끝까지 긴장감 놓지 말고 잘 대처해 생명안전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은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맛 나고 생생한 도시로 만들겠다.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안전 벤치마킹 도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 윤화섭 안산시장 취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14대 안산시장 윤화섭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평화의 새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누릴 삶의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33년 전 반월공단 노동자로 처음 안산에 왔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우리 이웃을 보게 했고, 함께 살아가는 맛을 알게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은 외롭지 않았습니.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따뜻한 것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려 합니다. 저는 시장이기에 앞서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할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삼촌이 되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교복 걱정 없고, 점심 한 끼라도 마음껏 먹게 하겠습니다. 반월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기고 사장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산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산의 힘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의 아들이 되어 건강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조금 다른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다름이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보장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람냄새 나는 안산을

# 66 시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밝히겠습니다.99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은, 살맛 나는 행복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안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제는 일어서며, 함께 누리는 공존의 가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민선7기는 새로운 시대를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기반을 다져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금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최선의 복지이고, 시민 여러분이 누릴 기본권입니다. 저는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30만 명의 사람이 모여드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님! 가족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열정이 있으나 창업이 힘든 청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산의 도시 경쟁력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도시를 남북으로 나누는 4호선은 안산 안에 또 다른 38선과도 같았습니다. 4호선 지하화로 안산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의 공간으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안산은 시민 여러분의 살 맛 나는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안산의 안전입니다.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흔 아홉 번 확인했다고 방심하지 않고 백 번이고 이백 번이고 살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복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둘째아이 출산 장려금과 출산연금은 팍팍한 삶에도, 희망을 연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게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입니다. 살피고 또 살피 좌절하는 이웃이 없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서해 바다의 낭만이 있고, 어디를 가도 쉴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항상 새로움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안산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 녹색에너지와 물이 순환하는 도

시, 바다와 자연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도시, 세계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창조

하는 도시, 살기 좋은 곳에서 살맛나게 사는 것은 시민 여러분이 누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겠습니다. 먼저 듣고, 함께 실천하고, 같이 걸겠습니다. 저는 일방적 지시나 지근거리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갈등을 조장하거나 한쪽 의견

만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권위만 앞세우거나 서류로만 판단하며 탁상공론만 하지 않고 현장에 먼저 있겠습니다. 중앙정치에 끌려 다니거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싸울 땐 싸우겠습니다.

주요정책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에 없으면 다시 살피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근심은 저의 걱정입니다. 나누고 헤아려, 답답한 마음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민선7기는,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안전, 상생, 존엄, 생태, 혁신, 협치를 시정핵심 가치로 정하였습니다.

4년 후, 시민 모두가 변화된 안산에서, 행복한 일상을 즐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살맛 나는 안산'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려 합니다. 저는 시장이기에 앞서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 첫째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 둘째

편리하고 문화가 숨쉬는 '일품도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 셋째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쾌적하게 할 것입니다.

#### 넷째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는, 고단한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 다섯째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는, 시민 여러분을 정책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 민선7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새로운 활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강한 역동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위축으로 고용인구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첨단, 융합, 벤처 등 산업구조 개편과 청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인류애와 촘촘한 복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안산시'를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생생도시'라는 단어에서 잘 드러나듯 젊고 활력이 넘치며 약진하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시의 핵심가치로 안전, 상생, 존엄, 생태, 혁신, 협치라는 6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다.

-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경제, 일자리, 관광산업) ■ 편리하고 문화가 숨 쉬는 일품도시(교통, 보건, 환경, 문화) ■ 자원과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청정도시(에너지, 맑은 공기와 물, 푸른 숲) ■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복지, 인권, 다문화, 안전) ■ 시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주민자치, 시민 협치)라는 다섯 가지 시정방침을 토대로 마련된 10가지 핵심공약을 설명한다.

###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살맛나는 100만 도시 안산

- 일자리 15만 개 창출
- 인구 30만 명 유입

산업 구조혁신	신규 일자리 9만4천 개	인구 유입 20만 명	산단재생 뉴딜	신규 일자리 5만6천 개	인구 유입 10만 명
---------	---------------	-------------	---------	---------------	-------------

산단구조 고도화·역세권 복합개발      벤처 창업단지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국가 R&D 특구 지정 및 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 01 젊음과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사람중심의 경제도시'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로 사람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만 명이 안산을 떠났다. 핵심 일자리인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감소가 심했다. 입주기업은 느는데 고용은 감소하는 쇠퇴기에 직면했다. 산업단지가 살아야 시민이 돌아온다. 이를 위해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혁신할 것이다. 또한 노후 산단의 도시재생 사업과 신길동 개발 제한구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토취장, 해양연구원 부지, 89·90블록 등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아 글로벌 연구단지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다.

### 02 물·에너지·자원이 선 순환되는 '환경·에너지 친화도시'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0%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해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전 1기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부도를 관련 특구 및 에너지자립 섬으로 조성한다. 이어 안산가상발전소를 설립하고 공공형 에너지슈퍼마켓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는 등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며 물 관리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체계로 바꾸어 물 순환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자원 순환형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해 환경·에너지 친화도시를 건설하겠다.

### 03 획기적 도시개조로 재탄생하는 문화예술 남북교류의 '서해안 허브도시'

“남북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러시아·유럽 진출의 허브 도시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도 4호선 철로로 단절되어 있는 남북을 다시 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하철을 지하화 함으로써 도시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그 공간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숲 공원으로 조성하며 나아가 교각 하부에는 문화예술과 세계음식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4개의 철도망이 교차하는 초지역세권을 가칭 아트시티로 개발함과 동시에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안산타워'를 건립할 것이며, 현 4호선 역인 중앙역과 신길온천역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조기 착공 및 추가 역사 설치도 놓치지 않겠다.

### 04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는 '글로벌 청년교류도시'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유엔국제청년다문화도시로 브랜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안산은 6월 말 기준 100여개국 8만 3천 여명(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유엔국제청년다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청년교류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관을 제공해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의료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4호선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

도시 숲 공원

청년창업 + 문화예술창작 + 세계음식문화 + 문화쇼핑

4호선 지하화      4호선 역세권 공영개발 (중앙역·신길온천역)

4호선 교각 문화예술·세계음식 플랫폼      안산타워 건립

명품 랜드마크 조성

4

###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 쾌적한 보행친화도시

- 보행자권리장전선포 및 차 없는 날 지정
- 걷고 싶은 가로수 숲길 조성
- 가로수 2열 식재 도입

#### 획기적 자전거 친화도시

- 민영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 자전거 등록제 도입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자전거 친화기업 인증제-인센티브

####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

- 친환경 초소형 전기자동차 공유시스템 운영
-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도입
- GTX 노선C(의정부-군포) 안전시연장

#### 주차장 확충, 안전한 주거환경

- 대형차량 공공 차고지 조성
- 구도심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도입
-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대
- 공영주차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05 더 오래 머물고 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출산부터 노후까지 오래 살수록 편안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 대대손손 정주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부터 노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산시민들이 “나는 안산에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둘째아 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연금을 지원하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1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오래 살수록 편안한 노인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더불어 사는 장애인복지도 실현하겠다.

## 06 더 걷고 더 타고 싶은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편한 보행·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도시를 위해 보행자 권리장전을 선포하고 차 없는 날(보행자의 날)을 지정·운영할 것이며, 일방통행로 확대 및 걷고 싶은 가로수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00% 재정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의 재정 부담을 '0'으로 하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으로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현행 1%에서 5배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안산 도심에서 대부도를 순환하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이다.

## 07 도시 숲과 녹지, 생태가 살아 숨쉬는 '녹색산소도시'

“자연 생태 숲 공원이 가장 많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산은 70%에 이르는 높은 녹지율과 많은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대부분 관상용 조경정원 방식으로 유지관리비가 높은 반면 '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는 배출하는' 순기능은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나무식재를 통해 울창한 자연 생태 숲 공원으로 전환, 미세먼지도 흡수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동식 재난구호주택 및 공공기숙사를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며,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공공 급식 제한 등 식품위생도 강화할 계획이다.

## 08 바다, 갈대, 문화, 역사의 향기가 꽃피는 '생태해양 문화관광도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산은 천혜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해운, 도로, 철도, 항공에 이르기까지 육·해·공 사통팔달의 입체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다. 이를 적극 활용해 생태관광과 해양레저,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도 마리나항 개발 및 힐링리조트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부도 방조제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며 시화호 주변의 생태환경을 탐방하는 자전거 올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맞춤형 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 출산 장려금 확대 및 출산연금 시행



#### 출산장려금

둘째아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  
오래 살고 싶은 안산

300

#### 출산연금제

둘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이사 않고 오래 머무르는 도시

**아이 낳기 좋은 안산**

#### 100원 행복택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저소득층 임신부

100

#### 좋은 보육환경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
- 무상교복, 무상급식 실시
- 외국인 자녀 유치원 보육료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 생태해양 문화관광 집중육성

2019년 국가지정 '안산 방문의 해'



#### 서해안권 해양관광 중심

-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 신재생 에너지 단지 관광 자원화

#### 생태탐방 자전거 올레길

- 자연경관테마의 워터프론트 특화공간 조성

**바다·갈대·문화·역사의 향기가 꽃피는 안산**

#### 생활체육의 메카

- 생활 및 맞춤형 체육 저변 확대
- 차별없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스토리가 있는 안산

- 역사·문화적 유적지+기념·미술관→스토리텔링

## 09 도시재생으로 균형 발전, 더불어 살기 좋은 '민생도시'

“노동자·농민·소상공인이 편안하도록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산은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만 27만 명이 근무하는 생산도시이자 노동자도시다.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도 20%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도록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동 준공업지역을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며, 본오도를 미래형 스마트농장이 집적된 6차 산업 및 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이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 경제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경영환경 개선, '안산시 오투기 센터' 설립,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청년 구직수당 지급 등을 추진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산을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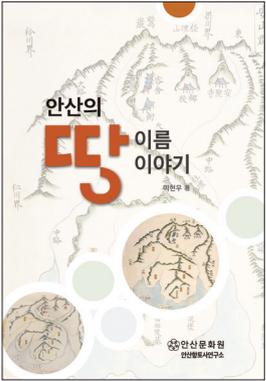
## 10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협치도시'

“시민참여가 활발한 시정, 협치와 화합의 시정으로 소통하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산시민들은 이미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공동체의 감동을 보여준 저력이 있다. 이러한 위대한 시민과의 연정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시민들과의 협치로 만드는 협업행정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시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이다.

## 안산문화원,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 책 발간

###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유래, 30개 동 1천여 곳의 사진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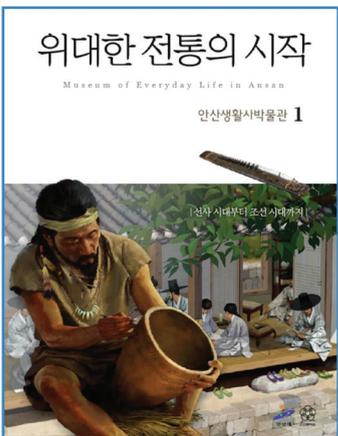
우리고장 안산에는 '꽃우물(화정동)' '황금길(적금로)' 등 지명의 유래를 알고 싶은 땅이름이 적지 않다. 안산문화원의 이현우 향토사 전문위원은 최근 전설·설화·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에 대해 생존해 계신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단행본을 발간했다. 관련된 300컷의 사진도 담겨 있다. 이현우 위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재임시절 '안산시사' 발간을 위해 1999년과 2010년에 안산의 땅이름을 조사하고 기록했었다. 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재건축·재개발로 안산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보충조사를 해왔던 책 발간을 서두르게 됐다."고 했다.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에는 왜 그런 이름이 생겨나고 지어졌는지 알 수 없었던 안산의 30개 법정 동(洞)과 산, 개

울, 나무 등 1천여 곳의 유래가 담겼다. 한 예로, '적금로(積金路)'라 이름 붙여진 올림픽기념관 일대는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서 두 아들과 살고 있던 할머니가 집 앞 성황당에서 아들들을 위해 치성을 드리던 중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어디쯤의 땅을 파보라고 했고 그대로 하니 황금이 나왔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현재의 적금로는 롯데아파트가 들어서고 연이은 재건축이 계획된 빌라단지였다. 김봉식 안산문화원장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땅이름의 유래가 전해오던 구비문학(口碑文學)을 기록문학(記錄文學)으로 남겨 의미가 남다르다. 안산의 땅이름들이 도시 발전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을 역사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가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애郷심을 높이는 데에도 한 몫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에 비치됐고, 안산문화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문화원, 생활사를 쉽고 재밌게 편찬한 '책' 발간

### '위대한 전통의 시작'... 신석기부터 조선까지의 안산 '조명'



안산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당시 삶은 어땠을까. 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안산생활사박물관1 '위대한 전통의 시작'은 공단 도시로만 알고 있던 안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생활사를 쉽고 재미있게 편찬한 책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이 함께 발간한 이 책은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안산의 역사를 그림과 사진, 이야기 형식으로 흥미롭게 담았다. 시대별 '살아보기' 주제로 꾸며진 책은 안산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과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들을 엮어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상상해보게 한다. 신길동에서 발견된 신석기 집터에서는 바다와 개천이 가까운 곳에 무리를 지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서는 광주리에 계를 팔러가는 아낙들과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이미지를 통해 당시 백성들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4대 서고 중 하나로 꼽히던 청문당의 만권당이나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의 자취를 따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조선 후기 실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게 된다. 특히 부록으로 연표(세계사와 함께 보는 안산의 역사)와 안산의 유물·유적·문화재가 지도와 함께 소개돼 지역사교육 자료로 유용하다. 이 책은 '산업도시'로만 알았던 안산이 선사시대부터 집단으로 정착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고기잡이와 소금 채취 등으로 생업을 이어오던 바다의 고장이었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전해준다. 또한, 안산의 작은 유적들과 문화재, 오래된 나무 등 마을 곳곳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서 이름 없이 스쳐 갔던 수많은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다. 김봉식 원장은 "많은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어떤 유적이나 역사적 인물이 살았는지 잘 모를 텐데,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며, "역사 현장을 직접 느껴보며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발간해 현재 2쇄까지 발행한 '위대한 전통의 시작'은 지역 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교육용으로 배포돼 있으며, 최근 개편한 안산문화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홈페이지 : www.ansanculture.or.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올 7월부터 외국인 아동 600여명 대상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7월부터 550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만3세~5세)등록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 매월 보육료 22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동안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점진적으로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와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031-481-2268)

## 안산시,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시민 불안감 해소 위해 7월 23일부터 진행

안산시는 최근 라돈으로 인해 높아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침대 및 라텍스 침구류 사용 등으로 라돈검출이 의심되는 안산시민(주민등록상 안산 거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apzsee@korea.kr) 또는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2일, 1천 원의 대여금액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라돈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대상자에게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612)

## 휴가철에 국가암검진 여유롭게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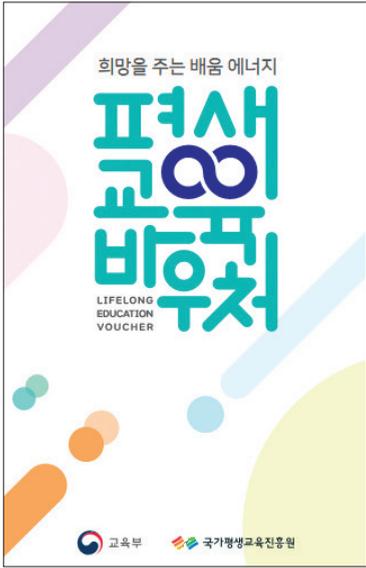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

안산시 보건소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국가 무료 암검진을 독려하고 5대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은 만20세 이상 여성, 만40세 이상 남성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암 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발송된 검진표에 기재된 지정 검진 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또한, 국가 무료 암검진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무료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22) / 단원보건소(031-481-346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희망을 주는 배움 에너지 ‘평생교육 바우처’

#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다”, 연 1회 최대 35만 원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범사업으로 2018년 7월 첫 발을 뒀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교육복지의 영역이 성인교육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자기계발과 능력 향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을 돕고 경제·사회적 여건도 개선한다.

만 25세 이상 성인(199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5천여 명 내외로 선정해 연 1회 최대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부대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의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강좌의 80% 이상은 꼭 수강을 해야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NH농협 체크카드(계좌개설 필수)로 지급되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산 지역 내 등록 기관은 7월 15일 현재 안산용신학교, 한국문화예술실용전문학원, 한국뷰티예술실용전문학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원 4곳이다.

안산시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기를 바란다.”며 “아직은 시행 초기라 신청자가 많지 않아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까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1600-3005, 홈페이지 : <https://www.lllcard.kr>)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8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안산시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 시민시장 · 성포공원 등에서

### ‘Public\_WiFi\_Ansan’ 선택하면 이용 가능

안산시는 전통시장인 초지동 시민시장과 구 도심권 공원에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존을 확대·구축,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통신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원을 중심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7곳을 추가 설치해 총 51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장소는 안산시민시장(4개), 성포예술광장(4개), 성호공원 일원(7개) 노적봉공원(5개-공공와이파이 개선), 와동 사세총렬문공원(구 도심 공원), 여성비전센터(1개), 단원보건소(1개) 등 7곳에 총 21개를 설치, 2주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적봉공원의 경우,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주차수 대역은 물론 공원 내 수목에 의한 전파 수신감도 손실발생과 동시접속자 수 증가에 따른 불편함 등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성능을 개선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업무를 볼 때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한 후 “Public\_WiFi\_Ansan”을 선택하기만 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고의 무선 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공원 등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달미역사(석수골공원), 선부역사 주변(선부광장)에도 공공 와이파이 존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안산지역 내 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설치장소	수량	비고
2015년	동행복복지센터 25개소, 시청민원실, 노인복지회관 2개	62	실내용
2016년	상록수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최용신기념관, 갈대습지공원, 성호기념관, 안산식물원, 여성정보하우스	30	실내용
2017년	노적봉공원, 성호기념관(옥상), 풍도, 육도, 낙조전망대, 화랑유원지, 와동체육공원, 반월공원	27	옥외용
2018년 (신규)	여성비전센터, 단원보건소	14	실내용
	시민시장, 와동사세총렬문, 성포예술광장, 성호공원일대, 노적봉공원(성능개선)	21	옥외용

◇ 문의 : 안산시 정보통신과(031-481-300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안산시 지정 제1호 치매안심마을’ ‘치매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



단원치매안심센터는 선부1동 성동연립 등 8개 연립단지를 ‘안산시 지정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7월 12일 사업설명회 및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방지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단원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양성, 인지기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안산 시도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치매 추정 환자는 약 6천여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단원치매안심센터와 상록수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우수한 전문 인력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의 : 상록수치매안심센터(031-481-5896)  
단원치매안심센터(031-481-6549)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지구인수어합창단 운영

## 우리 모두가 처음 배우는 언어 '수어'로 노래 배우며 소통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지구인들의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하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는 함께 어우러지며 수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지구인수어합창단'이 있다. 지구인수어합창단은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던 결혼 이민자와 막연히 수어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한국인 등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수어 교육모임으로, 수어로 노래를 배우며 소통한다.

중국에서 온 박영숙 씨는 "농아인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음악이나 인형극 같은 공연을 보면서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수어를 배워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수어모임은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퇴근 후 저녁시간에 진행된다. 수산티(인도네시아) 씨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정말 어려웠다. 한국어도 어려운데, 수어는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 표현을 하는 방식이라 더 어렵다.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르쳐주시는 강사님이 워낙 재미있으셔서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수어교육은 안산시수화통역센터 홍순옥 사무국장이 진행한다. 홍순옥 국장은 노래가사를 막연히 외우게 하지 않고 가사에 담긴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전달하고 있다. 강의를 모두 마치면 9월에 있을 수어합창대회를 통해 무대에도 설 계획이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은주 부관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촛불집회 때 가수 조피디의 공연무대 한 쪽에서 온몸으로 노래를 전달하는 수어통역사의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우리도 수어를 배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도 피곤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배우는 것 같다."며 "수어교육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했다.

지구인수어합창단은 의사표현이 가능한 수어교육과 무대에 설 수어노래와 동작, 표현력을 연습해 농아인을 위한 공연무대도 계획하고 있다.

◇ 문의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031-493-266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INTERVIEW

### 2018 안산시 여성상 수상자 김길숙 씨

## “1년에 400시간 참여, 봉사는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생활 속에 봉사활동이 일상화 됐다는 김길숙 씨. 2006년부터 안산시민참여복지회 외부강사로 활동하며 아동 성폭력예방 교육과 반월공단 기업체 대상의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위기 속 여성 3명에게 가정폭력상담 및 가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촘촘 안전망 서포터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을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주변 쓰레기 수거, 낙서 지우기 등 위환경 개선활동을 하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전화도시조성협의회 안전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아동, 가족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금도 부곡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에 커피를 나누고 노인정이나 다문화아동센터에서 간식 봉사를 하며 안산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 홍보와 상담 자원봉사, 초중고에 사람 책 진로지도 자원 봉사 등등 '봉사활동이 곧 삶'이 된 김길숙 씨와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Q 한 해 봉사활동은 얼마나 하세요?**

적게는 250시간, 많게는 400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봉사활동이 생활이 됐어요. 집에서 빨래나 청소하며 보내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예요.(웃음) 집안 일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밖에 나가 하는 활동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성장할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에게 베푸는 성향이셨는데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겨울에는 털실로 아이젠을 짜서 어르신 신발위에 신겨드리곤 했어요. 또 저렴한 장갑을 30켤레 정도 구입해 갖고 다니면서 장갑 없는 분들이 눈에

띄면 드렸어요. 2006년부터는 시청과 연계해 양성평등 관련 외부강사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돕다가 성폭력, 가정 폭력 예방, 청소년선도 캠페인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신데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에서 근무하면서 상상 이상으로 심한 사례를 많이 접했어요. 특히 성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데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시민의식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매월 8일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 데이'입니다. 이웃에서 큰소리나 비명소리가 나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비명소리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Q 주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가정만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⑦

# 사동 '삼계탕 하우스'

## “삼계탕 비쌀 이유 없다”... 5천 9백원에 즐기는 여름 보양식



이열치열이라고 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쳐 입맛을 잃었다면 좋은 약재들로 푹 끓여낸 삼계탕으로 입맛도 찾고 기력도 찾아보자.

이번에 소개할 안산시 착한가게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전문점 '삼계탕 하우스'다.

삼계탕 하우스에서는 국내산 닭과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을 넣고 푹배기에 푹 끓인 삼계탕을 점심특선(오전 11시~오후 3시)으로 5천 9백원에 판매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 식당에 들어서는 손님들이 어리둥절할 정도지만, 이곳

은 이미 'KBS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을 만큼 삼계탕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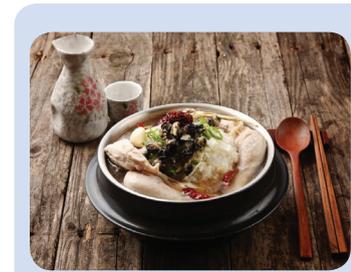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도 괜찮을까'하는 걱정에 대해 한명수 사장은 "삼계탕을 왜 만 원 이상 주고 먹어야 하나요? 닭 한 마리 도매가가 보통 2천원입니다. 식당이나 손님이나 삼계탕을 여름 한철, 복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만 생각해요. 손님은 비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식당은 여름 한철 장사라 생각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지요.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팔면 충분히 이익이 남습니다."라고 말했다.

삼계탕의 조리과정을 최대한 줄여서 손님이 오면 3분 안에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곳만의 비법이다. 닭 삶은 육수를 미리 준비해두고 손님상에 나가기 전 도라지와 참깨 등으로 만든 재료를 함께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낸다.

이렇게 음식이 빨리 나오니 손님들의 식사시간이 줄고 그만큼 식당의 회전률이 높아져 삼계탕을 싸게 많이 팔 수 있다. 삼계탕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닭은 싱싱하고 부드러운 국내산으로 준비한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던 한 손님은 "가격도 싸지만 고기가 부드럽고 국물이 담백하며 삼계탕 종류가 다양해 자주 와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삼계탕 하우스는 착한메뉴인 삼계탕뿐만 아니라 울 삼계탕, 열큰 삼계탕, 우렁 된장 삼계탕 등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은 7천 원으로 저렴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주소 :**  
상록구 감골로 15  
**전화 :**  
031-416-3233  
**정기휴무 :** 없음

◇ 문의 : 삼계탕 하우스(031-416-323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한양식당

#### 푸짐하고 맛있는 집 밥



한양대 학교 근처에 위치한 한양식당은 학생들이 집밥이 생각날 때 많이 찾는 곳이다. 가격 또한 저렴해 학생들이 부담없이 즐겨찾는 이곳은 찌개류, 비빔밥류, 덮밥류는 5천 원이고 볶음류는 6천 원이다. 특히 제육덮밥은 큰 접시에 밥과 제육볶음을 놓고 그 위에 달걀후라이까지 얹어 푸짐하고 맛있게 보여 인기메뉴다. 반찬은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류가 나온다. 반찬으로 나오는 떡볶이는 좀 특이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많다. 부족한 음식이 있으면 자유롭게 셀프로 추가해 먹으면 된다.

주소 : 상록구 학사2길 11, 1층(사동)  
전화 : 031-417-6730 / 정기휴일 : 매주 일요일

### 옛날학사

#### 제육쌘밥이 단돈 5천 5백원



한곳에서 20년 넘게 운영된 옛날학사 제육쌘밥 식당.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위치해 많은 학생들이 찾는 곳이다. 실내에 들어서면 정기공연, 동아리공연 등 포스터가 한눈에 들어와 일반 식당하고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표 메뉴인 제육쌘밥은 5천 5백 원이며 쌘밥 3인 이상 주문시 된장 또는 순두부가 서비스로 나온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박이다. 쌘밥이라 반찬이 많이 필요 없을 법도한데, 김치, 무말랭이 무침, 무생채, 햄, 계란프라이가 반찬으로 나온다.

주소 : 상록구 학사2길 11-4 102호(사동)  
전화 : 031-418-7184 / 정기휴일 : 매주 토요일

### 부정(父情)부페

#### 제값 하는 착한 식당



물가가 높은 요즘, 제 값을 못하는 음식점이 많다. 그러나 부정부페는 대인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반찬을 자랑한다. 감자조림, 깻잎무침, 가지나물 등등 반찬만 조금씩 접시에 담아보니 그 수가 무려 22가지다! 특히 돼지고기가 부드럽고 국물 맛이 좋은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으니 정말 제값하는 식당이다. 식자재 등 가격이 올라 가끔 운영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계속 찾아와 주는 단골을 생각해 몇 년째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하니 주인장의 마음씨 또한 진정한 일품!

주소 : 단원구 원포공원1로 49, 116호  
전화 : 031-484-4447 / 정기휴일 : 매주 일요일

## 미술의 도시 안산 ⑤

안산은 조선 후기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미술의 도시다.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예술가들이 사랑한 예향의 도시였던 안산. 단원 미술관과 경기도 도립미술관 등 크고 작은 미술관에서 날마다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안산을 대표하는 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지금 이 순간도 완성되고 있는 도시다. 안산을 미술의 도시로 만든 현대화가 성백주, 장성순, 정문규, 신성희 화백의 삶과 예술을 차례로 소개한다.

# 미술관 열고 관객과 소통하는 안산의 대표화가 '정문규' 죽음의 고비 넘어서 생의 찬미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



안산을 대표하는 현대화가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정문규 화백이다. 1934년 경상남도 진주 출신인 정문규 화백은 1990년부터 안산에 정착해 작품활동 중이다. 2009년 안산시 대부도 선감동에 '정문규 미술관'을 개

관한 후 매년 정기 전시회와 매달 음악회를 개최하며 관객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미술가.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정문규 화백. 그의 삶 발자취를 따라 작품세계를 들여다봤다.

### 그림 잘 그리던 학동, 교사를 거쳐 화가가 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쟁을 피해 시골로 이사를 갔지. 학교에서 어느 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림을 그려오래서 어린 나이에 일본이 하와이에 가서 폭격하는 장면을 그려왔는데 일본인 교장이 깜짝 놀랐나 봐. 전교생을 모아 놓고 이 학생은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지. 화가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꿀 시기였는데 그 사건 덕분에 부모님이 화가가 되는 걸 반은 승낙한 셈이 됐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일본인 교장의 한 마디는 그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됐다. 진주 사범대학에 입학해 교사로 평탄한 삶을 살아가갈 수 있었지만 화가가 되고 싶은 열망을 꺾을 수 없어 홍익대학교 회화과로 진학해 미술공부를 이어갔다.

초기 정문규 화백은 한국의 자생적인 추상 미술에 몰두했다. 황토색, 갈색, 흰색 등 한국의 민족적 색채로 흙을 형상화하는 색채와 독자적인 질감을 표현하려 했다. 당시 미술계의 흐름인 반 아카데미 반 앵포르멜 정신이 그의 초기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 조선 백자의 소박미 누드로 표현

정 화백의 그림 세계는 1968년부터 2년간 일본 도쿄예술대

학 대학원 벽화연구실에 유학 한 후 새롭게 변화했다.

"고대나 중세에 걸친 벽화에서 휴머니즘을 느낀 후 절제된 색채와 면도칼을 이용한 스크래치 법을 사용해 개성적인 화면질(마티에르)을 추구했다. 누드를 그린 EVE 시리즈는 색채는 빼고 조선 백자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업이었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20년간 지속된 그의 그림 세계는 1992년 위암 선고와 투병을 딛고 난 후 다시 한 번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위암 3기 진단한 의사는 수술을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의사를 설득해 수술을 받고 오랜 투병생활 끝에 결국 건강을 되찾았다. 정말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거에 대한 감회가 깊고 감사한

“

선교사가 종교를 알리듯이  
예술가는 예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마음이 가득했다. 그 때부터 그린 그림은 작품 사이즈가 커지고 다양한 색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생의 즐거움 기쁨을 전달하고 싶었다"

정 화백이 투병 생활을 위해 선택한 도시가 안산이었다. 바쁜 도심보다 한적한 동네가 좋아 안산으로 이사 고잔신도시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다 2006년 선감도에 '정문규 미술관'을 지어 이사했다.

### 미술가는 아름다움을 알리는 예술선교사

해수당 건물을 인수해 미술관으로 꾸민 '정문규 미술관'은 정 화백의 작품활동과 휴식, 전시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1층엔 음악을 좋아하는 그와 아내(이영선 여사)를 위해 클래식



카페 아르페지오가 만들어졌고 2층엔 기획전이 열리는 제1전시관을 만들었다. 3층은 정 화백의 개인작품을 전시한 제2전시관과 화백의 작업실로 꾸몄다. 정 화백 부부는 4층에 살고 있다.

정문규 미술관은 개관 후 1년에 2회 이상 기획전을 개최하고 매달 음악회를 열어 벌써 100회를 훌쩍 넘어섰다.

후배 작가들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관객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드는 일.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을 그가 꾸준히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선교사가 종교를 알리듯이 예술가는 예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 전 한국 현대화가 1세대인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85억에 경매됐다. 왜 그 작품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미술을 통해 느끼는 행복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 관객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화가, 음악회 기획전시회 열어

예술의 아름다움, 예술이 전하는 행복의 크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정 화백. 그는 올 여름에도 기획전과 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진짜보다 더 똑 같은 하이퍼리얼리즘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시회 준비 중이며 7월 28일과 8월 11일에는 음악회가 열린다. 7월 28일은 소프라노 조혜진과 작곡가 강한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옛가곡과 신작가곡들'이 무대에 오르며 8월 11일은 베를린 필하모닉 비올리스트로 활동 중인 박경민씨가 정문규 미술관을 찾아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관객들을 만난다.

요즘에도 이른 새벽이면 아뜰리에 내려와 다섯 시간 이상 작품을 그린다는 정 화백. 올 여름 정문규 미술관을 찾아 안산의 대표 화가와 소통하고 예술로 교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 대한민국 1세대 대표 원로작가 '성백주 화백' 미술작품 100점 26억 원 상당 안산시 기증



지난 7월 18일 성백주 화백은 26억 원 상당의 미술작품 100점을 안산시에 기증했다. '장미화가'로 잘 알려진 성 화백은 대한민국 1세대 원로작가로서 1955년 '민주신보 창간 10주년 기념초대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초대전과 개인전을 펼쳤으며 주요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2000년에는 '제 3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화단의 거장이자 미술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이다.

안산에서 창작활동을 해온 성 화백은 이번 기증을 통하여 "안산에 정착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안산시에 감사하며 그동안 평생을 전업작가로 활동하면서 작품에 구현하고자했던 내면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대표작품 100점을 선별하여 기증하게 됐다"면서 "기증 작품들이 전시회, 공공기관 전시 등에 활용되어 안산에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기증받은 작품들에 대해 도록제작 및 최적의 환경을 갖춘 수장고 보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철저히 보존하며, 기증 작품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문화 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성백주 화백의 작품 기증에 안산시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그 숭고한 뜻을 기려 향후 작품의 품격에 맞게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 기증 전문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5)

## “목판화부터 디지털복제까지... 판화의 미래를 만나다”

### 경기도미술관 '판화하다-한국 현대판화 60년' 전시, 9월 9일까지



한국현대판화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판화하다-한국현대판화 60년' 전시가 9월9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 현대판화 역사 60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내 대표 판화 작가 120명의 작품 160점이 출품됐다. 김정자, 이항성, 윤명로 등 판화 1세대 작가의 전통적이고 목직한 판화부터 디지털 복제시대의 새로운 발상까지, 판화 개념의 확장을 보여주는 동시대 작가의 실험적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시는 판화 작업과정에 초점을 맞춰 '각인하다', '부식하다', '그리다', '투과하다', '실험하다'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인하다' 섹션에선 깎고 굵고 찍어내는 신체 노동이 만들어 낸 입체적이고 대담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 걸렸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으로 화제가 된 신장식 작가의 1991년 작 '아리랑-기원'이 눈길을 끌며 전통 동드릴과 전기공구로 목판을 굵어내 화면에 리듬감을 부여한 박영근 작가의 '베드로에 관하여-성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부식하다' 섹션은 구리나 아연판에 날카로운 도구로 이미지를 새긴 후 산(酸)을 이용해 판을 간접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금속 바늘로 가늘고 무수한 그물망을 새겨 넣어 생명의 근원으로 다가왔던 빛을 표현한 하동철의 '빛 88-E4', 선의 교차와 톤의 변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정교한 조형미를 이루는 한운성의 '매듭이 있는 풍경'은 부식 행위가 빛어내는 정밀한 표현력을 보여준다.

'그리다' 섹션은 평면 위에 직접 드로잉하고 찍은 작품들의 풍부한 조형성을 보여주고, '투과하다' 섹션은 판에 구멍을 내거나 섬유 텍스처 사이로 잉크를 투과시켜 찍는 방식을 소개한다. 특히 흰 숨을 가득 채운 투명 플라스틱 상자에 말 이미지를 무 새색으로 채운 권순왕의 '자라나는 이미지-말'은 스텐실 원리로 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씨앗이 자라는 방식을 사용해 판화 장르를 해체한다.

'실험하다' 섹션에선 정통 판화의 개념을 확장해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D 판각 기법을 도입한 작품, 판화의 평면성을 극복한 혼합기법 설치 등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판화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여러 작품이 출품됐다. 나광호 작가의 '익은 것과 날 것'은 작가가 가르친 아이들의 낙서들을 모아 투명한 아크릴과 유리에 디지털 이미지로 겹겹이 쌓아 판화의 확장을 보여준다. 밥풀에 캐스팅 기법을 활용한 황인선의 '밥상 위의 연금술-이슬아슬한 대화', 렌티큘러로 판화의 평면성을 무너뜨린 하원의 '폭포' 등 매체 자체를 넘어 복수성이란 판화적 방법론을 끝없이 확장한 동시대 작가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볼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재료와 기법, 맥락에 관한 다각적인 탐구가 깔린 다양한 범주의 작품들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현대판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능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며, "한국 판화를 집중 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판화의 고유한 감수성과 풍부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와 더불어 아카이브 섹션에서는 한국현대판화의 어제와 오늘을 연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전시되며, 각 판화기법의 고유한 특성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기록한 프린트메이킹 필름도 상영된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목판화와 세리그래프판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작가의 작업실'도 진행돼, 신장식 작가의 '금강산' 목판화를 소장해 갈 수 있고, 나광호 작가의 드로잉을 에코파우치에 세리그래프 기법으로 옮겨볼 수 있다.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안산 시장에게 바란다!

“가족 같은 시장이 되어서 즐거운 도시 안산을 만들어주세요”

윤화섭 민선7기 안산시장이 발표한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다.

7월 2일 첫 걸음은, 폭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인 안산시청 재난상황실로 향했다.

간단한 취임선서가 있었고, 시민 대표들이 나서 소중히 적어 온 편지글을 읽었다. 이후 윤화섭 시장은 상록구청,

단원구청을 포함해 2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보드가 마련됐다. 많은 기대와 소망이 담긴 글들이 쏟아졌다. 간추려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윤화섭 시장님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초청되어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여러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요청드리고

자 합니다. 집 안에서만 살아가는 장애인이 무려 70퍼센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외출이 무섭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나 혹은 비장애인과 자신이 외관상 달라 보이니 그들의 관심조차도 두려워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는 미안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나친 호의로 다가가서 서로 경직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비장애인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장애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볼 때부터 진정한 평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보시면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그들이 도움을 바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도움이 이루어지는 안산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도움이 있을 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나와 우리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가장 잘 나가고 행복한 안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선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2년 전부터 장애인 인식교육 강사로 초중고 학교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최초로 보험 설계사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한 엄마 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 대표 최경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국가대표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축구대표팀에게 우리 국민이 보내준 응원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안산시장입니다.” 이 말 또한 안산시민이 당신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윤화섭 시장님과 내빈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함께 민선7기를 시작하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딩동딩동” 문을 열고 나가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딩동딩동”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이 울릴 때마다 누런 봉투에 들어 있는 옛날식 또봉이 통닭 반 마리, 검정 비닐봉지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한 통, 또 어느 날은 곰취 나물, 또 어느 날은 삶은 옥수수, 별만 울리고 사라지는 윗층에 사는 키다리 아저씨, 참으로 소박하고 정이 많은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나의 이웃, 그 사람은 윤화섭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현관 앞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는 이웃이며, 말라버린 철쭉을 뽑아버리고 손수 사철나무를 사다 심는 듄직한 사람이 바로 윤화섭 시장님입니다. 오늘 윤화섭 시장님 취임식을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했듯이 사람중심, 안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시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시장님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안산,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 감사합니다.

- 시민대표 허병순

윤화섭 시장님께.

먼저 임명된 시장님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제가 2014년 한국에 와서 안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안산의 첫 이미지는 경치가 아름답고, 사람들도 배려심이 있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인류의 정신 식량인 도서를 자유롭게 빌려 읽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안산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부동에 있는 안산글로벌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한국생활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은 저희 이주여성들의 제2고향이고 앞으로 평생 함께 살게 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명된 시장님께 바라는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과정 중에 필수적인 영양제이고, 건강한 가정 분위기에서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국 엄마들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이주여성들이 이국 문화 차이를 겪고 있는 동시에 육아를 하면서 자신도 재빨리 한국생활을 적응해야 하고, 자신의 자아 실현도 이루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여전히 결혼이민자들은 차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교선생님, 일반시민에게 다문화이해교육, 인식 개선도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생 도시 살맛 나는 안산’ 청사진에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最后, 祝愿新市長 身體健康, 萬事如意!

-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 있는 쉰이준홍



# 이런 안산 시장이 되어주세요!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시작합니다!  
문화섬 안산시장



장애인콜택시광역시전역으로!

가로등 설치로 밝은 안산만들어 주세요!

약취가 안나는 안산만들어 주세요

유기동물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애인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론볼선수)

공공일자리 많이 늘려주세요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 끝까지 간직해주세요

청년실업 대책 세워주세요

돈 많이 버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주세요♡♡

노인 장애인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시길...

안산만의 특별한  
문화활동을  
만들어주세요!

트럭불법주차때문에  
사고위험이높습니다.  
강력단속!

안산시 이미지 개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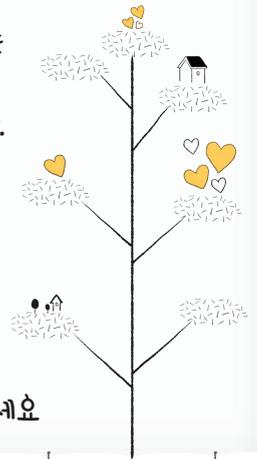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H-2 비자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하철 지하화하고 지상에  
대형쇼핑몰 지어주세요

신안산선 조기착공해주세요!

마스크 없는  
청정안산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 측정소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농구장,  
버스킹 공연장  
만들어 주세요.

식물원 공원에  
유아 놀장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인선 공사도  
빨리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유소년 축구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사해 주세요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시고 약속  
했다면 실천하여  
주십시오.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여  
대여해주세요

인구유입이  
늘어나는 안산이  
되도록!

아이 키울 맛,  
살 맛, 일할 맛,  
학교 다닐 맛

소수가 아닌 다수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 같은 시장이  
되어주세요

페달로  
간장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간쳐주세요

광역버스 늘려주세요!  
밤늦게 서울 다니는  
게 불편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도시  
만들어주세요

다자녀가족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외진 곳에 가로등  
많이 설치 해주세요.  
꼭!

쓰레기 없는  
안산을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가득한  
안산으로  
만들어주세요

재미있는 도시  
안산을  
기대합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해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무료 공부방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고 안산시민에게  
복잡하지 않은  
훌륭한 시장

긍정한 인사를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 만들어주세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시민과 소통 할 수  
있는 시장님

눈에만 보이는  
행정 말고 속이  
팍찬 공감 행정

Bakery  
**빵집  
 아저씨들  
 협동조합**

## 뭉쳐야 산다... “함께 어깨동무하며 상생해요”

골목상권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오며 문 닫는 동네 빵집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동네빵집 사장님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005년 자원봉사 단체로 결성된 ‘빵집아저씨들’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장애인 시설에 매일 5천 개의 빵을 전달한다. 각자 자신들의 빵집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2번 재능기부로 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봉사도 한다. 빵집아저씨들은 “매월 케이크 30~40개를 만드는 데 드는 재료가 만만치 않지만 케이크를 만들어 집에 가져가는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봉사단체 ‘빵집아저씨들’이 경기도 최초의 빵집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건 점점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는 제과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처음 12명으로 시작한 봉사자들이 7명으로 줄었으나, 동네빵집 점주들은 세미나를 열고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으며 2013년 12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독립 제과빵집에서 생산하기 힘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게트, 쿠키, 케이크 등을 공동 빵공장 운영을 통해 품질을 높여나갔다.

동네빵집 점주들 각자의 장점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 효모를 사용해 프랜차이즈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혼자서는 매일 만들 수 없었던 마카롱과 오믈렛 등 신제품도 함께 생산·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었다.

협동조합 구성원이자 솔로문제과를 운영하는 김기철 이사는 “혼자 하는 게 한계가 있거



든요, 20~30년 경력자인 여러 명이 기술을 공유하고 신제품 등 정보를 교환하면 조그만 제과점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며 “어머니의 밥처럼 정성스럽게 만들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만들어내는 신선한 빵은 반드시 소비자도 인정하게 된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 문의 :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031-484-041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⑨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 나무엔 - 세상에 없던, 그러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다



영화관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초지캠프에는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랩과 우드 랩이 있다. 3D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구비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생산해 볼 수 있도록 한 공작소 ‘팹 랩(Fab Lab)’도 있다.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팀 ‘나무엔’의 이지혜 대표를 만났다.

시제품 개발·제작 전문회사 ‘나무엔’은 차세대 기술교육을 연구·개발하는 교육 브랜드 ‘엔씨드’를 내세워 재밌고 쉬운 초등 교육부터 전문가 심화과정의 기업체 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

기계설계공학과를 전공한 이지혜 대표는 원조 메이커들의 모임 ‘봄봄봄(Beginning of Original Makers)’ 메인 멤버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의 CAM(컴퓨터를 통한 생산·제조 분야), 제품설계와 개발, 디자인 모델 등 다양한 제품과 산업분야에서 엔지니어 및 강사로 활동했다. 또한 LG, 삼성, 인천폴리텍 등에서 근무한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작업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가 제조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고,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조업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그동안 상품화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융합 인재교육을 통해 그 중개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원래 설계 자료의 부족으로 현품에 정밀 측정과 이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치수와 재질 등을 파악해 기술 자료 묶음을 생성하는 것)’가 가능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나무엔’은 ‘기술자가 나무라면 교육은 씨앗’이라는 이 대표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브랜드 ‘엔씨드’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재료와 장비, 3D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능적인 작업을 반복하는 단순체험이 아닌 모든 교육에 ‘왜?’라는 질문과 기술적 설명을 통해 응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이는 유동적인 교육이 가능한 강사의 역량이 있기에 가능하다.

‘나무엔’은 역량 있는 강사를 섭외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자를 양성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교육기관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방과후 교육, 대학과 기술교육훈련원, 기업체, 중소·벤처기업 교육 등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공학 분야들을 융합하여 쉽고 실용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기관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교보재(교육을 위한 보조재료) 개발도 하고 있다. ‘매개변수 모델링(Parametric Modeling)’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교재는 혼자 학습을 하거나 교육자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문의 : 나무엔(070-4001-641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대부도를 노래하는 ‘안산 가수’ 서비아 씨

###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파도가 부서지는 / 노을빛 바다 속삭임 / 그윽한 포도향기에 / 내 마음도 취하네 /  
해솔길을 걸으며 / 근심 모두 버려요 / 희망과 사랑 안고서 / 함께 걸어요 /  
서해를 가르며 바다 / 신비한 섬 대부도 / 갈매기 노래하는 / 그곳에 가고 싶어라~ /  
아름답게 펼쳐진 팬션 / 그림 같은 대부도여 / 계절마다 새로워요 / 나의 사랑 대부도 /  
행복을 선물해주는 / 그곳에 함께 갈까요 / 사랑이 넘실거리는 / 내사랑 대부도”

대부도를 노래하는 가수가 있다. 2007년부터 안산에서 살며 3집 음반까지 낸 가수 서비아 씨. 현재 가인엔터테인먼트라는 공연 기획사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서비아 씨가 2년 전 제작한 ‘내 사랑 대부도’라는 노래에는 노을빛, 포도향기, 해솔길 등 실제 대부도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 이 나열되고 있다. 이는 직접 작사·작곡을 맡았던 서비아 씨가 그만큼 대부도를 잘 알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서비아 씨는 “몇 년 전 영흥도 축제에 초대가수로 무대에 서기 위해 시화대교를 넘어가던 중 해질녘 대부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됐다. 바다와 시화호를 가르며 달리는 시원함과 함께 섬 전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던 노을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며 “숲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멋진 바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내가 살고 있는 안산에 대부도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아 씨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도 대부도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남초 자리에 해당화가 많이 피었고 노랑부리백로라는 철새도 많았다.”며 “그곳에서 근무하던 총각선생님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것. 사실 여부를 떠나 대부도를 노래



한 가수의 대부도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서비아 씨는 ‘내 사랑 대부도’가 지명을 주제로 불려지는 ‘부산 갈매기’나 ‘안동역에서’처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 서비아 씨가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독도 강치.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독도에서 살던 강치는 캘리포니아와 갈라파고스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단 3곳에서만 발견됐던 매우 희귀한 동물이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1970년대 중반 절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인들의 공격에 맞서 대항했던 강치들의 용맹함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민족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아 씨는 일제에 대항하다 장렬히 사신 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독도를 사랑한 강치’를 노래로 불렀다. 또한 다큐멘터리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제작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이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을 통해 강치를 알려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집마다 강치 캐릭터가 하나씩 놓여지고, 그로 인해 독도 강치가 다시 복원되는 날이 왔으면 꼭 좋겠다.”는 서비아 씨다.



독도에서 멸종된 ‘강치 (바다사자)’에 관심... 노래영화 제작 준비

## 경일관광경영고 이준기 학생, 한국은행 공채 ‘최종 합격’

### 전국에서 5명 선발, 경기도 내 유일... 실무 인재 교육 성과



방과후학교 활용 통해 1학년 때부터 자격증 차곡차곡 준비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교장 권영훈) 금융정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기 학생이 한국은행 공개 채용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채는 전국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며, 모집인원은 전국적으로 5명 이내, 수도권에서는 2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이준기 학생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합격함으로써 “경일관광고뿐만 아닌 안산 시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자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의 일반사무직원은 정규직으로서 서류 전형-직무적성검사-1차 평가(실무면접/인성검사)-2차 평가(심층면접) 등의 정교하고 까다로운 선발 과정으로 유명하다.

이준기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은행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갖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으며, 학원에 가는 대신 방과후학교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금융권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특히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남들보다 2~3배 더 열심히 노력해온 성실함도 한몫했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다.

이준기 학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교사 A씨는 “(이 군은)3학년이 되어 한국은행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며 충고와 가르침에 성실히 따랐다.”며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모두 당연한 결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권영훈 교장은 “현장에 적합한 실무 인재 양성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나의 꿈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전교생들의 꿈을 액자로 만들어 학교 건물 복도와 현관에 전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상황에서, 이준기 군의 한국은행 합격은 준비된 자가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칭찬했다.

이어 “학생들을 자식처럼 돌보아주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준기 학생은 “그동안 도와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취업지원관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맙다.”며 “한국은행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대학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기계발과 업무전문성을 높이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격 비결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두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며, 1학년 때부터 금융 분야에 집중해 관련 자격증을 준비했던 것도 주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지정 특성화고인 경일관광경영고는 상업 서비스 분야 맞춤형인 ‘BSM(Basic-Special-Multi)’ 교육에 중점을 두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멀티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취업우수반을 운영하여 NCS 인·적성검사 대비 문제풀이, 시사경제 상식 수업, 토론 면접수업,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면접교육,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금융권, 공사 등 각종 우수 기업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 “아침밥은 건강한 하루의 시작, 공부 실력도 좋아져요” 각골초등학교, 우리 쌀 중심 아침밥 먹기 운동 펼쳐

“아침밥을 먹읍시다. 아침밥을 먹읍시다.” “아침밥은 한순간 건강은 한평생” “아침밥은 우리의 에너지, 건강한 하루의 시작”

7월 13일 상록구 각골초등학교 등굣길, ‘아침밥 먹고 다니기’ 운동이 한창이다. 학부모회 회원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볶은 김치를 넣어 주먹밥을 만들고, 떡메를 내리쳐 인절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안산시 급식지원센터가 제공한 우리 쌀로 만든 식혜와 주먹밥, 인절미에는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5학년 이지수 어린이는 “아침밥을 먹어야 수업 집중도 잘되고 체격도 당당해진다며 회사에 다니는 어머니가 바쁜 시간에도 챙겨주셔서 거르지 않고 먹는다.”며 “오늘 캠페인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정성 같다.”고 했다.

학부모회 회원 강영란 씨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아야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해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아침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넓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경숙 영양교사는 “잡곡밥과 섬유질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이용한 소박한 밥상이 건강에 이로운데, 이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그린 ‘우리 가족 아침 밥상’을 보면 가지나물, 오이무침, 감자조림 등 건강식이 보인다. 아이들이 원하는 급식 메뉴도 인스턴트식품 보다



는 슬로우 푸드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각골초등학교는 지난 2015년 점점 줄어드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쌀 중심 식습관 교육 학교’에 선정돼 4년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김장현 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아침밥 먹고 다니기 운동’으로 아이들 건강은 물론 우리 쌀 소비 촉진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각골초등학교(031-502-174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시, 폭염 대책 쏟아져

### 무더위쉼터 확대, 물놀이시설 확충, 그늘막 추가 설치



안산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예방 대책을 쏟아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행정국장을 팀장으로 7개반 41개 실·과·소·동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윤화섭 시장은 23일 9시 폭염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무더위 쉼터 지정, 그늘막 설치, 물놀이시설,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점검했다. 윤 시장은 회의에서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불편을 최소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 TF부서와 협조하여 상록수 제공, 그늘막 추가설치, 체육관 무더위쉼터 활용 등 시민들이 폭염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기존의 무더위 쉼터 237개소(경로당 216, 행정복지센터 17, 금윙기관 4)에 도서관, 주민센터, 체육관 등을 추가 개방해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변 행단보도에 그늘막을 동별로 1개씩 추가 설치하고, 문화광장과 화랑유원지에 물놀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상록수 물을 공급키로 했다.

이어 폭염예방 예산 6백만원을 증액해 전단지, 부채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휴대용 선풍기를 재난도우미 활동 지원물품에 추가키로 했다.

시는 폭염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재난관련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안산시는 23일 현재 온열질환자 6명만 발생했으며, 농축산 및 어업 분야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119)

## 전세 보증금 찾아준 택시기사 이한범 씨

### 평소에도 선행 이어져... 상록서로부터 감사장 수령



안산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한범(55) 씨가 차에 두고 내린 돈 봉투를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인에게 돌려주는 선행을 베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대기)는 이한범 택시기사를 경찰서에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한 시쯤 이한범 택시기사는 평소처럼 영업을 나가기 전에 택시 내부를 청소하던 중 조수석 의자 사이에 떨어진 편지봉투를 발견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1천만 원 권 수표 2장을 포함해 현금 등 2천 5백만 원이 들어 있었고, 이 택시기사는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이 분실했을 것으로 판단해 즉시 인근 월피차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서 수표를 추적해 돈의 주인을 찾고자 했고, 그 결과 전날 저녁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 A씨가 좌석 사이에 빠뜨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초반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밤새 잠을 설치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찾게 되어 안도의 숨을 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범 택시기사는 “큰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었다”며 A씨에게는 “사회생활 잘하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보상금 또한 최소 금액만 제외하고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다.

이한범 기사의 선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3월에도 현금 9만3천 원과 각종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김대기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직접 감사장을 전달하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따뜻한 사회를 비춰 주는 것 같다. 경찰 또한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분리배출법-③

# “먹을 때는 알맞게, 버릴 때는 가볍게”

전체 음식물의 약 1/7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연간 20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885만 톤에 이르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연간 처리비용도 8천억 원이 들어간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자원낭비도 막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 온 국민이 음식물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18억 kWh의 에너지가 절약돼 39만 가구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 1억9천600만 장을 보급할 수 있으며, 1천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온실가스도 177만 톤을 감소시키며 이는 승용차 47만 대의 온실가스 배출량, 소나무 3억6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 음식물쓰레기, 퇴비나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용기에 버리거나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구비되어 있는 전용용기의 음식물쓰레기는 관리소 측에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고, 비용은 입주인이 공동 부담한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물 전용 오렌지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6만1천톤, 하루 평균 16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다. 그 중 86%인 5만2천 톤을 처리해 연간 1만 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90%는 퇴비나 동물의 사료, 바이오 가스 등으로 재활용된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는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20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수거차량이 새벽부터 수거해온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시설에 쏟아놓으면, 음식물쓰레기는 저장고에서 파쇄돼 선별시설로 이동하며 봉투 등 이물질은 선별한 후 탈수시설로 옮겨진다.

탈수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전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분회수시설을 거쳐 유분판매에 의한 수익창출과 함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의 오염 부하율을 낮춘다.

탈수 후 톱밥을 섞고 발효시설에서 36일 동안 숙성기간을 거쳐 퇴비로 탈바꿈한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김양남 총괄팀장은 “안산시민에 무상 공급되는 퇴비는 작황이 좋아 매년 신청하는 농민이 많다. 씨앗 파종기인 봄부터 여름까지 3개월 동안 대기할 정도”라며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없앤 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또 일요일에는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는 배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송신웅 소장은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검정 비닐봉투가 섞여 버려지는 게 가장 문제다. 순수 음식물만 버리면 자원화가 가능하다. 포크나 숟가락 등 금속류와 소뼈 등은 장비를 마모시키고 체인에 걸리면 기계가 고장 난다.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후단 공정이 체류되고, 기계 수명이 단축되면 결국 시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알쏭달쏭 헷갈리는 음식물 · 일반 쓰레기 이렇게 구별해요

음식 같은데 일반 쓰레기인 경우도 있고, 일반 쓰레기라고 여겼는데 음식물 쓰레기인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것이 음식물 쓰레기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제대로 된 분류기준과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 ◆ 과일류

수박이나 메론, 귤, 바나나, 사과 껍질 등 물렁하고 수분이 함유돼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다. 파인애플, 호두, 도토리, 등 딱딱하고 뽀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 ◆ 채소류

옥수수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 껍질과 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마늘대 역시 일반 쓰레기다. 양파나 마늘, 옥수수 껍질처럼 수분이 없는 채소 찌꺼기, 영양가와 수분이 전혀 없는 달걀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육류&어패류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의 뼈와 어패류의 딱딱한 껍데기는 당연히 일반 쓰레기다. 생선뼈도 마찬가지다. 조금 특수한 경우지만 복어의 내장과 알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 ◆ 기타

같은 식품인데도 부위에 따라 다르게 배출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고추다. 꼭지나 씨는 일반 쓰레기로, 몸통이나



고춧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티백이나 한약, 커피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 된다.

###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하면 확 줄일 수 있어요

#### ◆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음식물 쓰레기의 1/10은 보관하다 먹지 못하게 돼 버리는 식재료다.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장을 보러가기 전 냉장고에 보관돼 있는 식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충동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

#### ◆ 주부9단표 냉장고 관리

냉동실은 물론 냉장실 안쪽, 눈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문제다. 날짜를 정해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수납 목록표를 작성해 붙여두며,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검정 봉투 대신 투명용기를 이용한다.

쓰고 남은 자투리는 용도에 맞춰 한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해놓으면 편리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냉장고 관리 앱 ‘우리집 냉장고’ 등을 이용하면 저장식품 관리, 유통기한 관리까지 가능해 냉장고 안의 식재료 관리가 수월해진다.

#### ◆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다시 보자

음식물 쓰레기가 될 운명인 것들을 한 번 더 활용하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한다. 부피가 큰 수박껍질은 겉껍질만 얇게 벗겨낸 후 새콤한 무침, 장아찌, 깍두기 등 반찬과 차, 주스로도 활용하고, 양파 겉껍질과 파뿌리는 물에 씻어 냉동한 뒤 국물내기로 쓴다.

귤과 오렌지, 레몬 껍질을 전자레인지나 오븐 청소에 활용하면 세제를 쓰지 않고도 묵은 기름때가 말끔히 제거된다.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꼭 짜거나 말려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문의 :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031-408-534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상록구 사동 '감골문화마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지원

# “마을이 곧 학교, 샴터가 곧 일터”... 공원 조성, 미디어 제작까지



상록구 사동이 '감골문화마을'로 2018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다양한 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그 마을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감골문화마을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며 샴터가 일터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가구 밀집 지역인 사동은 30~40대와 20대 이하 청소년·청년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 중 하나다. 2010년부터 활동해온 감골주민회(대표 이영임)와 마을숲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 단체들이 협력해 공동체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마을카페와 목공방, 청소년 공간이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매년 어린이날 축제와 마을음악회 등 다양한 마을 축제가 열리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세대가 활동하는 마을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어 공동체 활동의 든든한 토대를 가진 지역으로 손꼽힌다.

감골문화마을사업은 '마을이 곧 학교', '생활 예술과 창작(직업을 창조한다는 의미)', '삶의 전환을 상상하는 마을'이란 핵심가치를 키워드로 '샴터가 일터가 되는 감골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게 된다.

첫 번째 '마을이 곧 학교'는 마을에서 함께 배우며 일하는 대안적 교육공동체를 상상하며,

마을문화학교와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아동, 청소년,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강사를 활성화해 배움과 가르침이 마을 안에서 순환되는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현재 창의코딩, 여행학교, 목공교실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동아리 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적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지난 6월 주민공모사업으로 아빠, 청소년, 학부모 등 총 5팀의 주민모임이 선정돼,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두 번째 '생활 예술과 창작'은 생활기술을 예술로 만들며, 누구나 마을 장인이 되는 감골마을을 상상한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발굴하고, 주민 간 네트워크 구축해 나가며, 마을 내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감골마을 통합 브랜드 제작, 마을 특화 상품, 마을 투어프로그램 등 마을 단위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삶의 전환을 상상하는 마을'은 생태적·예술적 실험을 통해 다가구 주택 단지를 새롭게 상상한다. 마을 돌봄 사업을 통해 젊은 주부들이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교사를 양성해 마을 일자리 창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여 명의 주민이 마을교사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고, 심화과정 수료 후 마을돌봄교실 교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마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미니정원이 조성되며, 마을 뒷산에서 숲 생태학교 교육장 및 숲 놀이터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마을신문과 방송, 다큐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마을미디어 제작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감골주민회 이영임 대표는 "마을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오며 개인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 예를 들어 마을 돌봄 사업도 맞벌이 부부들의 절박한 필요와 함께 마을에 소소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로 시작됐다"며, "도시에 살아가는 주민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돼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고 재미있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문의 : 감골주민회(031-408-7601 /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12 2층)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별망중학교, '3일 3색 독서 나침반' 운영

# 영화 속 인문학 여행... 삶의 성찰과 소통의 기회 제공



별망중학교(교장 홍인자) 1학년 3반 학생들이 '3일 3색 독서 나침반'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속 인문학 여행을 떠났다. 이번 행사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를 지원하는 '독서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일주일에 2시간 씩 3회에 걸쳐 운영된 독서 활동은 참가 학생들이 "다른 장르를 적용해 공부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영화 속 인물의 성격 분석을 통해 자아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통일성 있는 글쓰기와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의 융합 학습을 통해 지식정보처리와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

웠다. 또한, 이미 보았던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체험을 통해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자기관리 역량도 함양했다.

김나영 학생은 "몬스터 대학교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인물을 해석하는 게 흥미로웠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물분석이 재밌었어요. 또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주제를 알고 보니 영화가 잘 보이고, 이미 봤던 영화인데도 더 많은 것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모둠 활동으로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경청하는 의사소통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별망중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찾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전문직업인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을 실시했다. 전문직업인들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쇼콜라티에(초콜릿 공예가), 직업상담사, 금속세공사, 가수, 치과위생사, 사진작가, 안무가, 드론전문가, 운동처방사, 법무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별망중학교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과 심한 학습 압박 속에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암기식 사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직업인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찾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문의 : 별망중학교(031-482-326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지역사회 합동 건강 캠페인’ 실시 휴가철 맞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



반월동은 반월역 이용 시민에게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예방, 금연 등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상록수보건소 반월보건지소와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반월파출소, 반월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적극 동참했다.

반월역 이용 시민에게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예방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반월역 내에 담배의 위해성, 결핵 예방법, 올바른 손씻기 등 건강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며, 금연 피켓 운동을 통해 전철역 등 공공시설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 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살맛나는 생생 도시 안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 문의 : 반월보건지소(031-481-3794)  
반월동 행정복지센터(031-481-5510)

### 도 주민자치대회 ‘우수상’ 수상 300인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상록구 일동이 ‘2018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10회째인 이 대회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시·군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7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위원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합창이나 상황극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퍼포먼스도 함께 선보였다.

안산시는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일동’이 대표로 참가해 300인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100인 합창단, 마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PPT 발표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의 합창으로 마무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 문의 : 일동 행정복지센터(031-481-5400)

### 돌고래배구단 동대항 어머니대회 우승



안산시 본오2동 돌고래배구단은 2018년 안산시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 올림픽체육관 등 4곳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1부 리그로 출전한 돌고래배구단은 준결승에서 만난 사동과 결승에서 만난 선부2동을 모두 꺾으며 5전 전승의 완벽한 우승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돌고래배구단은 2004년 본 대회 개최 이래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우승컵을 내어주지 않으며 본 대회에서만 통산 14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돌고래배구단의 하병수 감독은 “선수들의 땀과 꾸준한 연습으로 이뤄낸 우승이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교엽 본오2동장은 “매 경기마다 좋은 성과를 보여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031-481-5505)

### 난타동아리 ‘울림’ 와스타디움에서 신명나는 공연



안산시 원곡동 주민자치센터 난타동아리 ‘울림’이 지난 9일 안산그리너스FC와 아산무궁화FC 경기가 있는 와스타디움에서 파워풀한 울림으로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다.

7명으로 구성된 원곡동 주민자치센터 난타동아리 ‘울림’은 와스타디움 축구경기 식전 공연을 통해 안산그리너스FC를 응원함은 물론, 흥경기를 찾아준 시민들에게 파워풀하고 신명나는 리듬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강혁덕 원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난타동아리 ‘울림’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을 갖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그간 실력을 갈고닦은 노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선행이 이런 영광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울림’은 매년 20회 이상 안산은 물론 인근 경기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 공연과 ‘사랑의 자장면 나누기’ 행사, 새터민 환우 의료비지원 바자회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

◇ 문의 : 원곡동 주민자치센터(031-481-6454)

### 마을신문 창간식 개최 “단순 신문 아닌 소통의 장 될 것!”



초지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신문 ‘초지일관 초지사랑’을 창간하고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식을 개최했다. 인터넷 주소는 <http://good-choji.com>이다.

행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하나인 크로마하프 수강생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윤태웅 주민자치위원장의 창간사, 내빈축사, 이유탉 마을신문 편집위원의 창간호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참가자들은 마을신문의 발전을 기원하며 떡 절단식 및 만찬을 가졌다. 윤태웅 위원장은 “초지동 마을신문은 단순한 신문 개념이 아닌 우리 동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고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며 “지금까지 초지동 마을신문 창간호 발행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마을신문이 더욱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문의 : 초지동 행정복지센터(031-481-6826)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 사랑 감자 나눔’행사



백운동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7일 신길동 일원 텃밭에서 회원 20여명 참여해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꾸어 온 감자를 수확하고, 관내 경로당 4개소 및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수확한 감자 중 20박스(10kg)는 동 직원과 회원들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 등도 파악하고, 향후 복지업무 추진 시 활용 할 계획이다.

고영태 회장은 “감자 수확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여 백운동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고, 회원들 모두가 직접 밭을 갈고 수확한 감자를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감자나눔행사에 그치지 않고 감자를 수확한 텃밭에 김장배추와 무 등을 심어 향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문의 : 백운동 행정복지센터(031-481-6706)

제8대 안산시의회  
의장단 인사말

#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펼치겠다”



**김동규** |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를 73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7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생각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제8대 안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의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회, 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의회, 안산시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로서 늘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 | 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8대 안산시의회에 당선되어 들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각오는 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장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안산시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바우나** | 의회운영위원장

본 의원을 제8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안산시의회에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당의 당 대표이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야당을 더욱 배려하고 의회가 화합하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 즉 예산 삭감,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또 폐지 이런 역할,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일하는 집행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에서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미희** | 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중요한 시기에 저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안산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선 인사를 하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수당으로서 기획행정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해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멀게 돌아 우리 다수당의 직으로 이 자리를 수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내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했던 결과를 받아주신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의 의미와 무게와 책임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며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들과 화합하고 협치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길** | 문화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문화, 복지, 산업, 그리고 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에 성실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사항들이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당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 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게 된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 도시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도시환경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모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발로 뛰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8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시민 행복 의정' 다짐 김동규 의장 "시민의 뜻 새기며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안산시의회가 7월 4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사진은 이날 개최된 개원식 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다.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7월 4일 의장·부의장 및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면서 8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의회는 이날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선거를 실시, 의장에 김동규 의원, 부의장에 김정택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송바우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주미희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정종길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나정숙 의원을 각각 뽑았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강광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윤태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에 현옥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에 이기환 의원을 상임위원 간 호선으로 선임했다.

이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진행된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민생의 전당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대의를 실현하며,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겸손히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동규 신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7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제8대 안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의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주요 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8대 의회 출범을 알리는 공식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안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송바우나 / 간사 강광주 / 위원 김진숙, 나정숙, 정종길, 주미희,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주미희 / 간사 윤태천 / 위원 강광주, 김동수, 김태희, 송바우나, 추연호

**문화복지위원회** : 위원장 정종길 / 간사 현옥순 / 위원 김정택, 박은경, 이경애, 이진분, 한명훈

**도시환경위원회** : 위원장 나정숙 / 간사 이기환 / 위원 김진숙, 박태순, 유재수, 윤석진

## 안산시의회 의장단, 기관방문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 확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돌며 의정방향 설명 및 현안 청취



안산시의회 의장단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지역 기관 방문을 실시했다. 사진은 9일 단원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8대 안산시의회 신임 의장단이 7월 9일 단원경찰서와 안산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 파악을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은 이날 단원경찰서와 안산교육지원청을 찾아 원 구성 완료에 따른 8대 의회의 의정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 별 협조 사항을 청취했다.

단원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치안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했다.

의장단은 특히 적극적인 대민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회동의 정례화와 소통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동규 의장은 "이번 기관 방문이 서로 간 소통을 확대하고 8대 안산시의회 의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더욱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 의장단은 이날 기관 방문에 앞서 안산시청 시장실과 기자실도 찾아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지역 주요 기관들을 돌며 8대 의정방향 설명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안산시 청소년의회, 다문화 소양 교육 등 상임위 활동 '돌입' 김동규 의장 "청소년 입장 반영한 참신한 안건 기대"... 격려



7월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장(사진 가운데)과 안산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안산시의회가 운영 중인 '안산시 청소년의회'가 안건 협의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7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도 회의를 갖고 안건 선정을 위한 자유 토론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놀이터 내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중·고등학교 스쿨버스 사용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함 총 7건을 논의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국내 낙태 합법화 관련 법률안'을 비롯해 5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한 이번 안건들은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에 맞는 형식으로 수정 보완돼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원회 개최에 앞서서는 다문화 이해를 주제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홍규호 강사의 소양 교육이 이뤄지기도 했다.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격려하고자 참석한 김동규 의장은 "안산시 청소년의회는 안산시의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분들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안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오는 7월말까지 안건 작성을 위한 속의 과정을 거친 뒤 8월 중순께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발표할 계획이다.



독자  
기고

## 마음 어리고 속 깊은 안산시민들의 향기 나는 마음씨

회사 근처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는 돈까스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은 사이드 메뉴로 저렴하게 잔치국수도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옛그제 점심때였습니다. 출장에서 늦게 돌아와 어쩔 수 없이 홀로 식당에 가서 돈까스를 하나 시키고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70대 초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폐박스 리어카 한 대를 끌고 뒤통거리며 식당 앞에 다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침 내 옆의 빈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7천 원짜리 돈까스가 먹고 싶다”는 할아버지와 “그럴 돈이 어디있냐”며 “4천 원짜리 국수를 먹으라”는 할머니의 핀잔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논쟁은 할아버지의 ‘완패’로 끝나 결국 4천 원짜리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돈 7천 원은 요즘 물가로 치면 그렇게 비싼 식사값은 아닐텐데... 하지만 어렵사리 폐지를 모아 생활하시는 노 어르신들에게 잔치국수보다 비싼 돈까스는 드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웠나봅니다. 두 분의 그런 대화를 엿듣게 된 나는 코끝이 찡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어르신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또 일을 하러 가시

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산대에 다가서자 식당 사장님이 웃으며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간 어느 손님이 두 분의 잔치국수 값을 대신 지불했고 다음에 오셔서 오순도순 드시라고 2인분의 돈까스 값까지 더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연히 두 분의 대화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혹시나 오해하시고 마음 상하실까봐라며,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마음이었다는 설명까지...

허... 참내. 어느 마음 착하고 속 깊은 안산시민이었을까요. 마음이 어지간히도 어리고 순하고 아름다운 시민...

두 어르신은 “이거 참... 고마워서 어쩐다지...” 하시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찾아와 돈까스 잡수시라는 식당 사장님의 당부에 그러겠다고 나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에서 진정으로 사람 사는 향기 가득한 안산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 남준희(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독자  
투고

## 캠핑장에서의 하루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춘다. 커튼은 가지런히 치어져 있지만, 새날의 밝은 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젠 일어날 시간인가’ 생각하며 잠시 현재 상황에 대해 가늠해 본다. “여기가 어디지, 오늘은 무슨 요일이고,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뜨려는 순간, 귓가에는 참새인지 뱀새인지 모를 새들의 재잘거림이 싱그럽다.

눈을 떴다. 낯설다. 우리집 침대도 아니었고, 우리집 창문도 아니었다. 아직 자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 우리가족만 똑같았고 나머지는 모두 달랐다. 그렇다. 우리가족은 어제 안산화랑오토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다.

오늘은 금요일, 남편도 출근시켜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가족들을 깨워야 한다. 다행히 쉽다. 이 방 저 방 다닐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마디로 “기상”하고 외치자 모두 자동반사로 일어난다. 나름 캠핑장이 주는 긴장감 때문인지 능력부리는 사람이 없다.

아침으로는 컵라면을 준비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무슨 라면이냐”며 잔소리를 늘어놨겠지만, 오늘은 캠핑 중이니 시원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더구나 지난밤 먹다 남긴 치킨을 넣어 먹는 라면 맛이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목요일, 평일 오후에 시작한 캠핑은 복잡함 대신 간편함을 선택했다. 요란하게 숯불 피워 고기를 굽는 대신 치킨과 초밥 등 각자 먹고 싶은 것들을 사오는 방법으로 만찬을 즐겼다. 디저트로는 각자가 선호하는 과자도 준비했다. 나름 푸짐했고, 재밌었고 그 안에

서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2층 침대 한 칸씩을 차지한 아들, 딸은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와 공부에 여념이 없었고, 퇴근 후 휴식을 갖는 남편은 TV 리모컨을 독점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나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드라마 사수를 외쳤고 결국 이뤄냈다. 그렇게 편안하게, 캠핑장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집이 아닌 공간이 주는 신선함이 좋았고, 도심 한 복판에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편안함도 만끽했다. 무엇보다, 집에서는 이래저래 계산하며 온·오프를 반복해야 하는 에어컨도 이날만큼은 맘껏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냉장고와 전자렌지, 식기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카라반에서의 하룻밤은 딱히 불편함이 없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는 옛 추억을 소환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나눠서 버렸다. 바로 옆 건물에는 깔끔하게 단장된 화장실과 샤워실, 식기 세척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카라반이 아닌 일반 캠핑장을 이용해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캠핑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참 매력적이다. “차로 10분밖에 안 왔는데, 마치 서너 시간 가야 하는 시골동네에 와 있는 느낌”이라는 우리딸의 평가가 딱 내 마음이다.

• 한혜진(상록구 성호로)



## 친환경 다이어트 방법

녹색소비  
생활 캠페인  
⑥

1. 육류 섭취를 줄이고 영양과 맛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많이 섭취하기
2. 욕심은 버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적당량만 먹기
3. 가공 포장에 많은 인스턴트 음식은 다이어트의 적
4.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





경찰  
기고

## 창살 없는 공간, '사이버 불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사이버 불링'의 어원 개념을 살펴보면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의 합성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의 괴롭힘(online Harassment) 또는 언어폭력, 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이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이 있고, 10명 중 6명은 자신 주변 지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미국 사회 전체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 해 동안 자살하는 10대 4천 5백여 명 중 상당수가 사이버 불링 피해자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연방 차원에서의 '사이버 불링 방지법' 제정에 관한 목소리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지난 몇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해 경험률이 16.2%, 피해 경험률은 16.8%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욕설, 따돌림이 만연하며,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를 견디다 못해 죽음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가해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고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차원의 심리상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기초적인 생활 상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상담뿐만 아니라 사이버 불링과 같이 SNS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상담체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공격성은 결국 건전한 인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전문 치료기관이 확대·신설되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할 경우 정신적인 충격과 타격이 크며, 이는 신체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 시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기 때문이다.

넷째, 전국 초·중·고교에서 사이버 불링 및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즉, 사이버 불링 대처요령, 사이버 불링 가해 시 수반될 수 있는 처벌내용 등에 관해 교육해야 한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경찰학 박사)

### 청탁금지법 Q&A

#### 사례1 회칙에 근거한 금품 등 제공

**Q** 공무원이 산악 동호회 모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공직자 등이 동창회 등 모임에서 회칙에 따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됨.

⇒ **해설** : 동창회 등의 회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

**<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사례2 친구 또는 친척이 제공하는 축의금

**Q** 공무원이 친구 또는 친척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은 경우?

**A** 법 위반이 아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금품등 수수가 가능함.

⇒ **해설**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므로, 친구가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여 100만원 초과하여 수수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라면 가액기준(축의금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함.

**<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제4호(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됨. / 공직자등의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미 해당

안산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독자코너 참여자 모집

#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출산 가정의 행복한 이야기로 꾸며지는 공간으로 안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 ★ **참여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까지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 **모집기간** : 상시   ★ **원고료** : 5만원
- ★ **접수방식** : 메일(bravo@iansan.net)
- ★ **내용** : 아기 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 아기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탄생이야기,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바라는 것), 아이를 키우며 있었던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 출산 장려 한마디 등
- ★ **문의** : 안산시 공보관 홍보기획팀 (031-481-2042)

출산가정의 행복한 이야기는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1953년생 어르신 폐렴 무료 예방접종

- ◇ **접종기간** : 2018년 연중(7월~9월까지 집중 접종기간)
- ◇ **접종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
- ◇ **접종대상** : 1953년생  
※ 만65세 이후 노인폐렴(폐렴구균23가 다당질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
- ◇ **접종시간** : 오전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
- ◇ **준비물** : 신분증
-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1~3) / 단원보건소(031-481-3513~5)

### 제32회 별망성예술제



- ◇ **일시** : 2018. 9. 8.(토) ~ 9. 9.(일) / 2일간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야외무대)
- ◇ **주최/주관** : 안산시/안산예총
- ◇ **주요행사** : '별망던' 불꽃쇼, 백일장, 시민장기대회, 체험부스 등

### 제3회 전국 대부해슬길 걷기축제



- ◇ **일시** : 2018. 9. 15.(토) 10:00 ~ 14:00
- ◇ **집결장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걷기코스** : 대부해슬길 6코스 · 바다향기수목원길
- ◇ **내용** : 개회식, 걷기행사, 부대행사, 경품추첨 등
- ◇ **접수기간** : 2018. 6. 4.(월) ~ 9. 5.(수)
- ◇ **참가접수** : www.ansantour.kr
- ◇ **문의** : 1899-1720

###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안내

소방기본법 개정·시행(6.27.)됨에 따라 사이렌을 켜고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개최일시** : 2018. 8. 2. (목) 14:00 ~ 16:00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  
-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를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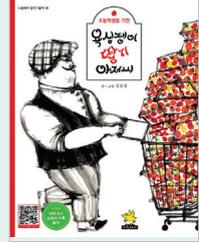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기!
-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기
- ◇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 85℃ 이상 가열처리!
- ◇ 어패류를 다룰 때에는 장갑 사용하기
- ◇ 어패류 조리시 수돗물로 깨끗이 씻기
-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기
-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9), 단원보건소(031-481-3480)



### 책 읽는 안산 / 7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저자 김유정 / 출판사 노란돼지

좋아하는 딸기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매일 좋아하는 딸기만 먹는 데도 행복하지 않은 아저씨.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먹고 싶은 딸기를 모두 아저씨에게 빼앗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이 책은 혼자서만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저자 타라 설리벤 / 출판사 푸른숲주니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 노동자의 시점으로 초콜릿 산업의 먹이 사슬 구조를 파헤치는 소설. 세 명의 소년 소녀가 카카오 농장을 탈출해 벌이는 열흘간의 모험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강제 노동의 실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파헤친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굶주림, 폭행으로 점철된 현대판 노예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저자 김수현 / 출판사 마음의숲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나답게 살라고.